玄海灘激浪中에 靑年男女의 情死

국작가와음악가가한떨기삿이되야 세상시비러저두고꿋업는몰나라로

男子는金祐鎭女子는尹心悳

◇…바위에부되치는물결 ═══ 작일셰검뎡에서

저난상일오호밤한시에 하관(下關)을떠나 부산(釜山)으로향한관부련락선 덕수환(德壽丸)이 시월오천네시경에 대마도(對馬島)영을 지날지음에 양성을한녀사한명과중년신사한명이 서로껴안코김판으로뛰여내리다 예놉은 덕지자살을하였는데 즉시배를멈추고부근을수색하였스나그종적을찾지못하였스며 그신개명부에는남사는전남북포부복교동(全南本浦府 北橋洞)김수산(金水山)X년)녀사는경성부외대문덩(西大門町)이 당년월백칠십삼번디온수 삿(尹水仙X년)이라하였스나 그것은본명이아니요남사는김우진(金祐鎭)이요녀자는 윤심덕(尹心悳)이였스며 유명한음악가로는윤심덕의돈지감에 현금일백사십원과상식품이잇섯고 김우진씨는 보는 현금이십원과금시계가도라잇섯는데련락선에서조선사람이 상사를한것은이번이처음이라더라(부산년보)

尹孃은音樂家 金氏는劇作家

單身으로涉世한尹孃來歷과 百萬長者金氏의最近

尹心悳의來歷 평양토 학생으로 일본에건너가서 동경신정사선의 윤심덕양은 본래 음악학교를 수업한후 일년동안 평양(平壤)생당(生長)으로평양 더청양에 관한연구를하여 가지 숭의녀학교(崇義女學校)를졸업하고 오년전에귀국하야 다시진안 하고 또한 평양녀자고등보통학교를맛친후 다시 경성녀자고등보통학교에 모다서울로 올라온것인데 교를맛친후 다시 경성녀자고등보통학교에 모다서울로 올라온것인데 보통학교사범과를 맛치고 강원 조선의악계를 통비하다가 일시 도어느곳 보통학교의 교원으로 세상에 영업을 (開)한 후부 봉직하다가 그후독부 관비유학생 안에자최를감추고 작년겨

◇살엇슬때의윤심덕양 (녀배우로나오던그당시)

◇생전의김우진씨◇

에서백만장자의맏아들로 년전 동경조도던(낙稻田)대학문학과 본과를맛치고 극(劇)에 관한연구와 조예(造詣)가깊은 청년으로 년전일본에서 역시정사를한 유도부량(有島武郎)씨를뵙시숭배하고의지하였는데 그는항상자리집에 넘우든이만하서 그호화도 쓰지않을 오히려 욧업은고동을 치지못하야 지난업마 전에 무단히집을하직하고 나와서 경성에삼간을 얻어다가 그달을 지나서 동경으로 건너가서 동경조도던(낙稻田)대학문학과에 입학하고 극(劇)에 관한연구와 조예(造詣)가깊은 청년으로 년전일본에서 역시정사를한 유도부량(有島武郎)씨를뵙시숭배하고의지하였는데 그는항상자리집에 넘우든이만하서 그호화도 쓰지않을 오히려 욧업은고동을 치지못하야 지난업마 전에 무단히집을하직하고 나와서 경성에삼간을 얻어다가 그달을 지나서 동경으로 건너가서 동경조도던(낙稻田)대학문학과에 입학하고 극(劇)에 관한연구와 조예(造詣)가깊은 청년으로 년전일본에서 역시정사를한 유도부량(有島武郎)씨를뵙시숭배하고의지하였는데 그는항상자리집에 넘우든이만하서 그호화도 쓰지않을 오히려 욧업은고동을 치지못하야 지난업마 전에 무단히집을하직하고 나와서 경성에삼간을 얻어다가 그달

그러면 윤심덕양과 김우진씨가 엇스나 지난륙월십일 바로인산 청사를하기까지의그경로와종래 의관계는엇더하였던가 윤양은 동경에서 음악을배호는 한편으로 또한극에대한 김혼취미를가지고잇섯섯고 김씨는 동경조도던대학문학과에서배호며역시극을 만히연구하야 량인의 예술(藝術)에대한공명으로부터서로 사랑의싹이 돗기시작 하였는듯한데지금으로부터약질년전에 동경류학생동우회(同友會)에서 극단을조직하며 공연하든써에도 권량인이가치 그단에 참가하야 각처를돌아 순회하였는데 그때 윤양이 동경에서 나온뒤 서로맛나볼긔회가 드물어서 량인새에못보아 애타는가 슴을부둥켜안고 서로상사의 한숨을지은적이 한두번 안이엇든 보양인데 그동안에도 서로서신 왕복과 종종맛나보는일도 잇서 그러면 윤심덕양과 김우진씨가 서울에서 동종조도던(낙稻田)대학문학과 본과를맛치고 극(劇)에 관한연구와 조예(造詣)가깊은 청년으로 년전일본에서 역시정사를한 유도부량(有島武郎)씨를뵙시숭배하고의지하였는데 그는항상자리집에 넘우든이만하서 그호화도 쓰지않을 오히려 욧업은고동을 치지못하야 지난업마 전에 무단히집을하직하고 나와서 경성에삼간을 얻어다가 그달을 지나서 동경으로 건너가서 동경조도던(낙稻田)대학문학과에 입학하